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구정목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발행인 | 중구청장 김홍섭 편집 | 문화공보실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전 화 | 760-7122 팩 스 | 760-7129 월 간 | 비매품(통권 49호)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영종주민의 날에는

영종에는
지나온 과거가 숨을 쉬고
다가올 영종에는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손을 잡으며
마음껏 웃고 마음껏 재물을 보입니다.

한마음으로
또 한마음으로 이어가고자
영종의 지킴이로 어느새 백발이 되신 부모님들
이제 작은 고사리 재물이 이어집니다.
꿈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박재신 글썅>



구정시책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주요기사 안

- 영종 주민들 한 마음 돼 '날아오르다' 2
- 21세기 뉴 실크로드 한중문화관 3
- 월미도, 명실공히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터 . . . 4
- 한중카페리 이용 크게 늘어 5
- 테마여행 - 중구청 앞길을 따라 걸어보면 . . . 6
- 중구사랑 - 산돌교회 7
- 신포시장 '만두 & 분식' 과 '맛샘분식' 8
- 포토구정 9
- 대체의학 - 여름철 별미 냉면과 식초 10
- 우리작은 소식들은 14

영종 주민들 한 마음 돼 '날아오르다'

제7회 영종 주민의 날 행사 2천여 주민 참가한 가운데
주민 노래자랑, 단체 줄넘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주민 '한마음'

‘영종 주민들, 창공을 가르는 항공기 처럼 날아오르다.’

제7회 영종 주민의 날 행사가 성료했다. 영종발전협의회가 주관, 지난 1일 운서동 소재 인천연수원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엔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석, 하나되는 자리로 승화됐다.

이날 행사엔 영종발전협의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영종해병전우회 등 대부분의 자생단체가 참여해 단합을 과시하며 화려한 봄날의 축제를 만끽했다.

행사엔 공항 신도시,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중산동 등 영종도 내 동민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계 각층의 구민들이 몰려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어린이 50여 명이 참가한 훌라후프 춤 대회, 5개 마을 부녀회가 자웅을 겨룬 단체 줄넘기 대회, 주민 대 주민 대항으로 이뤄진 줄다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경기가 참가자들을 기쁘게 해 줬다.

또 어르신들이 참여한 장애물 경기, 꼬리표를 뽑는 주민 노래자랑, 경무 합기도 팀의 합기도 시범, 황빛나 황정아의 라틴 댄스, 인하 코리아 팀의 태권도 시범 등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지미연, 김연주, 현이와 명

이, 김무스, 성수현 등 초청가수들이 자신들의 히트곡을 불러 참가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들이 올해 97세를 맞은 중산동 김선환옹을 비롯해 운남동 태귀분 여사, 성웅녀 여사 등 고령자들에게 큰절을 올릴 때는 참가자들 모두가 기립박수 갈채를 보내 행사의 의미를 더 해주기도 했다.

채기석 영종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영종 주민의 날 행사는 주민화합과 단결을 통해 영종 발전과 중구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아울러 주민과 주민이 서로 사랑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랑과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영종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공항이 있고 경제특구가 위치한 영종도는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계인 모두가 바라보는 국제적인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영종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동참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와 주민들에게 공로패와 호부상 등을 전달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취재 : 김동규, 추중호)





‘한국을 느껴보세요! 중국을 체험하세요! 한국과 중국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1층에선 현재 '벽제 고상순 도예 전'이 열리고 있다. 금세라도 튀어나올듯한 호랑이 문양을 그려넣은 '호문병', 백자포도문병 등 고상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도자기의 도시인 이천시와 광주시의 '분청인화문호'와 '백자철화매죽문월호' 등 도자기들도 만난다. 한 쪽에선 방문객들을 위한 도자기 체험교실이 열리고 있다. 재료값만 내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컨디션 제1·2회 관광중구

사진 공모전에서 뽑힌 사진 20여 점이 전시중이다. 월미도 야경 등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사진에 담겼다. 아울러 벽걸이 스크린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2층으로 올라가 본다. 돈 넣는 상자인 ‘금궤’를 쌓아놓았다. 그 옆으로 고색창연한 ‘수장농’ ‘서탁’ 등 우리나라 전통공예품이 전시돼 있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가자 경복궁 경회루 사진이 먼저 인사를 한다. 2층 한증문화전시관에선 중국의 9대 관광지구와 10대 명승지, 4대 직할시를 영상과 사진, 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랑액, 마
오타이주, 죽엽청주 등 중국의 술과 돛
찜, 마파두부 등 중국의 음식, 55개 소수
민족 등 중국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물도 볼 수 있으
며 한국관도 접할 수 있다.

3층은 우호도시 홍보관으로 꾸며졌다. 중국 전통음악을 감상하며 산동성, 요녕성 등 8개도시 토산품과 공예품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는 중국산동성임기시난산구인민정부가 기증한 돈과 금은보화를 형상화한 예술품이 특히 눈에 띈다. 산동성 청도시 시남구의 사군자와 낙관전등, 옥돌수공예품,

108명의 영웅호걸을 유리병 안쪽으로
그려넣은 '내화공' 등 신비롭고 투명한
예술품들이 즐비하다.

4층은 공연장으로 영화나 공연을 접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얼마전 개관축하공연이 열려 성황을 이룬 바 있다.

15일 한중문화관을 둘러본 구자웅씨
(61·인천시 남구 학익동)는 “한국과 중
국의 문화를 한꺼번에 체험하니 정말 놀
랍다”며 “이런 전시관이 인천에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의 (032)760-
7860

(취재 : 이재경)

월미도상가 7대 번영회장 신찬규씨

“월미도, 명실공히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터”

발칸포이전, 고도제한 완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

워터스크린, 무대이벤트, 코스모스 유람선 적극 홍보도



“월미도를 관광특구란 이름에 걸맞은 명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월미도 제7대 번영회장에 선출된 신찬규씨(53)는 “월미도가 관광특구로만 정해졌을 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안되고 있다”며 “개발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그는 발칸포대 이전을 꾀었다.

“월미도에 있는 발칸포 부대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조망권을 가로막아 관광이란 이름에 역행하고 있지요.”

이 부대만 옮기면 해수청이 1만 평에 이르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도 덧붙인다.

“월미도를 비롯해 중구민들은 고철부두, 해사회사, 곡식사료 등으로 탁한 공기 속에서 엄청 고생을 해왔습니다. 이를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월미도가 발전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을 위해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월미도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논의되는 중입니다. 고도제한이 엄격해 투자하는 사람이 없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신 회장은 또 월미도지역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임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한다.

“월미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우선 워터스크린이 완공된 만큼 바다속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무대 이벤트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코스모스 유람선에 대한 낭만적인 요소도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월미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월미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선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월미도 상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관광 중구를 만드는 맨 앞줄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8년 전 월미도에 정착한 신 회장은 복성동 문화의 거리에서 ‘창신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영덕 출신인 그는 부인과의 사이에 5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볼링이다.

(취재 : 이기현)



답동성당

전세기 말부터 40여년간 답동언덕 위에 고고하게 서있던 답동성당은 개항후 파리 외방 전도회가 들어옴으로서 인천은 1889년에 천주교를 맞게 되었다.

교세가 확장되면서 성당이 필요하게 되어 신부와 신자가 힘을 합쳐 성금과 자재를 모아 3년에 걸쳐 석축했다.

당시 4천에 불과한 인구에 2백여 명의 신자로서 대지는 인천감리가 회사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벅차고 힘든 공사였던가 짐작이 간다. 1896년에 성당

의 축성식과 함께 수녀원과 해성보육원을 세웠으니 그 어마어마한 업적에 찬사를 올릴 뿐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신자가 천오백명으로 늘어난 성당으로는 미사집전을 감당할 수 없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다행히 본당 사제 전 으제니오신부가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어서 그의 진력으로 1937년에 지금과 같은 웅대한 답동성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후 교세가 나날이 확장되면서 답동을 본당으로 시내에 성당이 늘어났다.

(자료수집 : 문화공보실장 하승보)

중 구 의 옛 풍 물



한중카페리 이용 크게 늘어

이용객과 화물수송 모두 30%대 급증세로 놀라운 기적들

인천과 중국 해양 도시를 오가는 한중카페리 이용객과 화물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 1·4분기 10개 한중카페리는 여객 15만7천35명, 컨테이너 5만7천161TEU를 각각 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중카페리 수송실적은 지난 2003년 이후 여객과 화물 모두 2년째 30%대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여객은 같은 기간 중 지난 2003년 8만5천164명에서 지난해 12만85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9%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29.9% 증가했다.

컨테이너는 지난 2003년 3만8천763TEU에서 2004년 4만4천268TEU 14.4%, 올해 29.1%로 크게 증가했다.

한중카페리들이 수송한 컨테이너실적은 같은 기간 인천항에서 처리된 전체 컨테이너 23만558TEU의 24.7%에 이르는 물량이다.

특히, 한중카페리 수송실적이 비수기에 해당하는 연초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페리업체는 이같은 추세로 나가면 지난 한 해 58

만6천296명의 여객을 수송하며 사상 최초로 50만명 여객시대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 여객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도 지난 2003년 20만1천936TEU, 지난해 23만2천639TEU에 이어 올해 30만TEU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을 기점으로 운항하고 있는 한중카페리는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톈진(天津), 다롄(大連), 단둥(丹東), 옌타이(煙臺), 스다오(石島), 잉커우(營口), 친황다오(秦皇島), 련윈강(連雲港) 등 모두 10개 항로다.



항만 전문인력 ‘직접 양성합니다’

처녀 교육은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해

‘항만업계 전문 인재 직접 양성합니다.’

국내 항만에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7월 개장하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이 전문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연수원과 공동으로 최근 뽑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전문 기능 교육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항만연수원은 (주)선광과 훈련약정 체결을 맺고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 투입될 컨테이너 크레인기사와 육상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T/C) 조종사 양성교육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맞춤훈련’으로 승인을 받았다. 특정회사에 투입될 인력에 대해 맞춤훈련으로 지정받아 교육과정이 개설되기는 인천항만연수원이 처음이다.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노동청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생은 모두 17명으로 오는 8월1일까지 3개월간 인천항만연수원에서 이론과 모의장비를

이용한 교육을 받고 부산항만연수원과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실습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컨테이너전용부두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기능인력의 적기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항만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항만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만연수원과 선광은 이같이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해 전문 맞춤교육을 통해 자체 인력 확보에 나서 향후 결과에 따라 항만전문인력 양성 체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항만연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14일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과정’을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인천항운노조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선광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은 2번째 교육이다.

(취재 : 김동규)

바닷바람 맞으며 즐거워 한 때를

오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 다채로운 행사

오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인천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펼쳐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축제’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인천해수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를 통해 인터넷 바다퀴즈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31일 다음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등대체험 행사가 실시된다.

초·중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인천해양문화축제는 바다사랑그림그리기, 거북선만들기와 함정견학, 영종·강화지역 해양문화시설 탐방 행사를 벌인다.

인천해수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행사안내 뿐 아니라 인터넷 바다퀴즈와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참가신청 접수도 할 수 있다.



테마
여행

중구청 앞길을 따라 걸어보면

고즈넉한 분위기 속, 일제시대 18은행 등 고건축물 곳곳에서 만나
차이나타운, 홍예문, 한·중문화관 등 거리 자체가 '테마박물관' 모습

“역사와 문화에 흠뻑빠져 타임머신 여행같아요”

홍예문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다 일본식 기와로 지붕을 올린 벽돌 단층 건물이다. 한 때 인천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 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된 탓으로 외벽은 낙서로 얼룩지고 을씨년스럽게 변했지만 고색창연한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한 집 건너 서 있는 건물은 현재 중구 요식업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58은행(시 유형문화재 제19호)이다. 오사카에 본점을 두었던 이 은행은 1892년에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해서 개점했다.

발코니와 돔 형태의 창문, 이중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맨사드형 지붕은 프랑스식 르네상스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후 조흥은행, 적십자사 등의 문패가 걸렸던 이 건물은 지어지고 이제 세번째 세기를 맞은 세월 탓인지 비둘기 켜의 무게도 힘에 겨운 듯 힘겹게 서 있다.

가던 걸음을 뒤로 해서 다시 4거리를 지나면 또 하나의 이국풍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옛 중앙청과 닮은 구석이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구 인천 일본제일은행지점(시 유형문화재 제7호)이다. 중앙에 돔을 설치한 석조 단층의 후기 르네상스양식 건물이다. 처음 지점을 설치했을 때는 목조건물이었는데 1899년에 벽돌, 석재,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일본에서 전량 들여와 다시 지었다.

겉고싶은거리 이제 양념만 느낀것이다.

(취재 : 김동규)



패루

중구청 앞길은 조용한 데다 조금만 거닐다보면 옛 유적들을 만나기 십상이어서 역사적 향기도 맡을 수 있다. 중구청을 둘러싼 길들은 소설가 오정희씨의 '중국인 거리' 무대가 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거리는 어쩌면 가장 인천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거리를 걷노라면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어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중구청을 중심으로 오른 쪽으로 오르면 차이나타운이 나온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교학

교와 중국 정통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국음식점들이 즐비하다. 최근 이곳엔 '21세기 뉴실크로드 가는 길'이라 이름붙인 '한·중문화관'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 옆으로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패루가 위용을 자랑한다. 중구청 뒤로는 자유공원이 펼쳐지며 왼쪽으로 거닐다보면 '홍예문'을 만날 수 있다. 일제시대 만석동 방면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일본인들이 뚫은 문이다.

중구청 아래 첫번째 골목, 일제 때 '본정통'이라고 불리던 그 거리엔 옛 일본계 은행 건물 세 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중구청 앞 작은 4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은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1890년 10월에 문을 연 '18은행'이다. 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은행으로 고전적 장식의 절충주의 양식에



58은행



한중문화관



자유공원



사랑을 나누는 산돌교회의 이런일 저런일 들



중구 신흥동 뉴스타호텔 옆으로 산돌교회(목사: 김영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교회는 지난 1979년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에는 신도수가 1,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서면 교회라는 무거운 이미지 보다는 김목사님이 바로 우리 이웃 아저씨이고 이웃사촌임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듯한 또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사님은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한목소리이다.

우리의 이웃에게 좀더 다가서서 사랑을 함께 나누면 즐거움은 더욱 커지고 고통은 나누어지니 적어진다는 말씀이다.

산돌교회에서는 3년 전부터 음지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항상 우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

여 노력하는 중구청 환경미화원 90여명을 초청 음식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이미지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여 참석한 미화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관내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자칫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속감을 갖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노인들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산돌교회노인대학에 다니는 이모 할머니(70세)는 “매주 1회씩 즐거운 것은 여러 노인들을 만나고 대화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인생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또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우고 영어, 컴퓨터, 체육교실 등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뜻이 깊다”고 하였다.

산돌교회는 지역여건상 항만지역이기에 외항선원들이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성실한 삶의 자세로 가족들과 이별하여 이국의 바다를 항해하는 약 500여명 외항선원들에게 지난 80년 후반부터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산돌교회에서는 불우한 이웃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독거노인 30세대에게는 김장김치 나누기, 도배하여주기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년 소녀 가정에겐 교회에서 자매결연 맺어주기, 학용품전달하기 등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지역 지구대 전경을 위문하고, 지역아동센터, 산돌교회 어머니 학교 등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튼튼한 사랑을 나누는 산돌교회의 아름다움이 크게 보인다.

(취재 : 김동규)





신포시장 '만두 & 분식' 과 '맛샘 분식'

싸고 푸짐한 별미가 넘쳐 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그곳에는

어린시절 낭만과

추억으로 가는 시간 열차가 있습니다.

우리 서민의 먹거리인

순대와 떡볶이

만두와 찌뽕이 어우러지고

오늘도 재래시장 역에는

서민이라는 기차를 타고

맛의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포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
수십 년간 신포시장에서
떡볶이 · 오뎅 · 만두 등
입맛 돋워
”

고추장 국물이 지글보글 끓어오르는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 다시마 국물이 시원한 오뎅... 수십 년간 어린이는 물론, 어른의 입맛까지도 사로잡는 이 매력적인 '사천 만의 먹거리'는 초등학교 앞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신포시장'에 가면 오리지널로 맛볼 수 있다.

물론 신포시장엔 분식집이 한 두 곳이 아니며 집집마다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이들 식당 풍경은 한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식당 앞에는 새빨간 찹떡볶이와 함께 뒤섞인 어묵과 삶은 계란이 군침을 돌게 하고 그 옆에는 두툽한 순대가 기름진 모습으로 돌돌 말려 있다. 한 편에선 보기 좋게 노란 모습의 야채 · 고구마 · 오징어 튀김이 튀겨지고 있고 식당 안 쪽에선 주방장들이 부지런히 만두를 빚고 있다.

“야 맛있겠다” “이건 무슨 만두예요?”

식당 앞에선 밝은 표정의 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식당보다 더 커보이게 음식을 쌓아놓고 또 만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별미'들은 남김없이 다 팔리곤 한다. 온 종일 음식을 만드는 작업이 멈춰지지 않는 건 바로 그만큼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만두 & 분식'에는 다른 집에선 찾을 수 없는 '치즈 만두'와 '매운 만두'를 만날 수 있다. 치즈 만두는 피자치즈를 속에 넣어 튀겨낸 것으로 쫄면 층이 매우 좋아하며, 매운 만두는 청양고추를 넣은 것으로 뒷맛이 깔끔하고 매콤해 느끼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대표 조경순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색다를 맛을 좋아한다”며 “치즈, 매운 만두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만두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맛샘 분식' 역시 특이한 만두가 즐비하다. 썩색, 노란색, 붉은 색 등 색깔부터가 심상찮다. 바로 썩을 넣은 썩만두, 호박을 넣은 호박 만두, 체리를 넣은 체리 만두이다. 물론 하나 같이 맛도 모두 다르다. 맛샘 분식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메뉴는 정통 인천 '쫄면'이다. 새콤 달콤 매콤한 소스가 맛의 비밀을 품고 있는 쫄면은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오면 쌓아온 노하우로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최고라고 대표 이정례씨는 말한다. “지금까지 쫄면 팔아서 자식들 출가까지 다 시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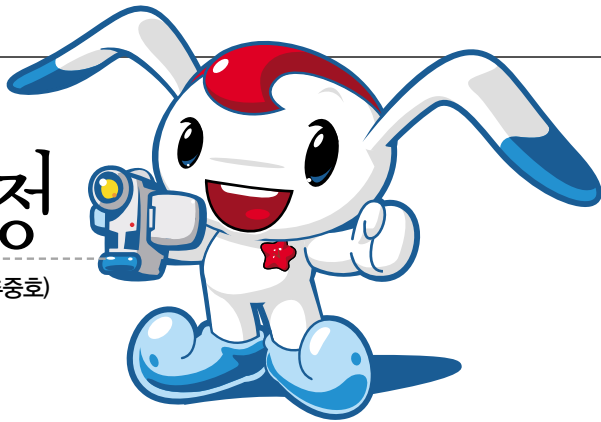
이 두 분식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싸고 푸짐하며 다양하다'는 것이다. 1천 원~5천 원 선이며 평균 2천 원으로 보면 된다.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준다. 오늘 가족회식은 고급 레스토랑보다 삶의 향기 물씬 풍기는 신포동 분식집으로 가보자.

(취재 : 이재경)



포토구정

(사진촬영 : 추중호)



양양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전달

김홍섭 청장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양군청을 방문해 “산불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기를 바란다”며 이견호 양양군수에게 중구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노인복지행정증진 대책회의

11일 우리 구에서는 답동 63번지 등 3개소 경로당을 신축계획하여 노인복지행정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김홍섭 청장이 관계부서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안동 동사무소 현안관련 방문

김홍섭 청장은 12일 연안동 사무소를 방문하고 2층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회원들과 만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라이프상가 주변 쉼터조성 등 당면현안에 대하여 환담하였다.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

지난달 25일 중구를 방문한 안상수 시장은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에서 구도심 균형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관광특구가 되는데 최 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영종주민의 날 행사

「영종주민의 날 행사」가 1일 운서동 소재 인천연수원에서 개최됐다. 김홍섭 청장은 이번행사가 경로효행 큰잔치로 열려 기쁘다며 영종발전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중국 난산구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김홍섭 청장은 지난달 20일 구청회의실에서 중국 임기시 난산구와 교류증진과 경제협력을 다지고자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다.

** 대체의학 **

여름철별미 냉면과 식초

냉면대접에 국수를 담고 편육과 오이무침, 삶은계란 등과 배를 얹고 육수를 가만히 부어 얼음을 띄워 먹는 것이 시원한 냉면이다. 냉면육수는 무를 얇박하게 저며 썬 동치미국에 양지머리를 삶고 기름기를 걷어낸 육수를 반비율로 섞어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이렇게 장만한 냉면을 먹을때 식초가 빠지면 상큼한 맛이 없어 허전한 느낌을 갖게 된다. 냉면과 식초는 미각적인 조화와 영양 그리고 위생의 세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서로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심한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신기하게 가신다. 또 식욕이 없을 때 식초를 친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독특한 신 맛을 가진 식초는 중요한 조미료이면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도 갖고 있다. 녹말이나 육류 등을 먹으면 대사과정에서 유산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쌓이면 피로가 가중되므로 피로소인 유산은 빨리 분해될수록 좋은데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식초등 유기산을 먹을 필요가 있다.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회복제이며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숨은 공헌을 한다. 여름에는 냉면을 먹고 배탈을 일으키는 식중독이 자주 일어나는데 물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기 때문이다. 대장균은 상온에서 20분이면 배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몇 마리 밖에 없었던 육수라도 몇 시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한다. 한 마리의 대장균이 5시간 후에는 75,232마리가 된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식품이지만 대장균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세균성 식중독 증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급성위장염으로 심한 설사가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중독균은 식품이나 육수가 중성일때 번식이 잘되고 새콤한 맛을 갖는 산성상태가 되면 생활조건이 맞지 않아 번식이 잘 안된다. 식초가 살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균수가 많아져 식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냉면에 식초를 타서 먹는 것은 풍미와 위생, 영양의 세가지를 잘 조정해 주는 일석삼조격이 아닐 수 없다. 냉면과 식초는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공업용빙초산은 유해 하므로 반드시 질 좋은 양조용 식초를 먹어야 한다.

■자료제공 : 심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 의 수 산 물

전복



전복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간장 해독기능, 항콜레스테롤, 심장기능향상 및 시력 회복등에 효과가 있다. 또 메티오닌과 시스틴 등 황아미노산이 풍부해 병을 앓은 뒤 원기회복과 피로 회복에 좋다.

■ 추천 도서 ■ ■ ■ ■ ■

흥터와 무늬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후 10년 만이자 시인 최영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편소설.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정씨 일가의 가파른 삶의 궤적을 딸인 하경의 입을 통해 서술하고 있는 이 작품은 격변하는 한국 현대사를 지나온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거울을 보는 '나'가 얼굴의 흥터를 의식하는 장면에서 시작해, 과거와 현재가 엇갈리다 어느덧 사십대가 된 화자가 다시 거울 앞에서 희미해진 상처자국을 응시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혼을 앞둔 '나'는 폭식과 배설을 반복하던 어느 날 불현듯, 잊혀진 이름을 떠올리며 시간의 강을 건너 간다. 1960년대 서울의 변두리에서 태어나 방송작가가 된 하경의 삶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은 언니와 아버지다. 불치병을 앓다 미국으로 입양되어 죽은 언니 윤경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실수로 부하를 죽였던 아버지 정일도는 그녀가 숨겨야 했던 과거이다.

최영미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哪(nǎ)賣(mài)啤(pí)酒(jiǔ)
맥주 팝니까

A: 請問(qǐngwèn)哪(nǎ)兒(ér)賣(mài)啤(pí)酒(jiǔ)
어디서 맥주를 팝니까

B: 哪(nǎ)兒(ér)賣(mài)
저기서 팝니다

A: 有(yǒu)青(qīng)島(dǎo)啤(pí)酒(jiǔ)嗎(ma)
칭도맥주가 있습니까

B: 有(yǒu), 要(yào)几(jǐ)瓶(píng)?
있습니다, 몇병사시겠습니까?

A: 要(yào)兩(liǎng)瓶(píng)
두병 사겠습니다



<More Tips>

※<주의> 살려고 하는 물건을 어디서 파는지 물을 때는 哪(nǎ)兒(ér)賣(mài)뒤에 사실려는 물건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ゴールデンウィーク
골든 위크 (4월말부터 5월초까지의 대형 연휴)

이: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は 東京(とうきょう)も ガラガラ だった そうですね?

이: 골든 위크 때는 도쿄도 텅텅 비어 있었다면서요.

田中(たなか): 今年(ことし)は會社(かいしゃ)によっては 10日間(とおかかん)もおかかん)も 休(やす)めるところがあったそうよ?

타나카: 올해는 회사에 따라서는 10일 동안이나 쉴 수가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10日間(とおかかん)も 休(やす)んだら 月曜病(げつようびょう)どころじゃないですね?

ボーッと しちゃって?

이: 10일 동안이나 쉬면 월요일병 정도로 안 끝나겠죠. 나른하고, 멍하고요.

田中(たなか): でも うらやましいなあ?

타나카: 그래도 너무 부러워.

<More Tips> •ガラガラ: 텅텅 비어 있는 모양 •~そうだ: ~라고 한다
•ボーッと: 멍한 모양

■자료제공 : 현대 외국어학원 내용문의 | 761-3536



제136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기성)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6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병우)를 구성하여 7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중구한중문화관광관리운영조례안외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원안가결』처리하였다.

안상수 시장 중구의회 내방



김기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달 25일 오후 4시 30분 우리구의회를 방문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시장 일행을 접견하였다. 김기성 의장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병우)가 지난 달 19일 제136회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였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가결』처리하였다.

가천의과대학교 동인천 길요양병원 개원식 참석



김기성 의장은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가천의과대학교 동인천 길요양병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탄생한 동인천 길요양병원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식 참석



김기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달 23일 오전 11시 운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장에서 개최한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기공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개발인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길

형유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14만6천여평의 사업부지에 각종 도시 기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미래형 국제 신도시가 건설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참석



김기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지난 달 25일 오후 5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시장과의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각 지역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안

상수 시장은 주민의 모든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임기시난산구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 참석



김기성 의장은 지난 달 20일 오후 3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국 산둥성 임기시 난산구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우리구와 난산구 양도시의 미래가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발전하려면 문화교류와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우호교류를 통하여 진정으로 양 도시간 구민의 마음속에 화해와 협력 우호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도심권 및 관광분야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선진지 비교시찰



인천광역시중구구도심권지역경제침체때때론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승언)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중구의 구도심권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선진지 견학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등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구도심권에 대한 방문으로 이뤄졌다.

제3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장기자랑대회 참석



최무용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노인복지회관강당에서 개최한 제3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장기자랑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오늘 어르신들께서 더욱더 생활에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개

인의 적성과 능력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제7회 영종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최무용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운서동 소재 舊 새마을연수원에서 개최된 제7회 영종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오늘의 행사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꾀하고 더 나아가 우리 고향발전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4월 2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

4월 23일부터「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피분양자가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양을 한 건축물은 이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4월 23일 이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분양피해로 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지만,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피분양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분양받을 건축물이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하셔야 합니다.

■ 분양법 적용대상 식별요령

- 4월 23일이전에 분양되는 건축물은 분양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법에서는 분양전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신고 후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법에서는 분양광고시 분양신고번호, 신탁회사나 보증회사 명칭, 피분양자 모집기간, 준공예정일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중구청 건축과 (☎ 760-7482)

❖ 식중독, 알고 예방하세요!

■ 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 장애 중의 하나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식품에 부착·증식하거나, 독성 물질의 혼입 혹은 잔류에 따른 건강상의 장애’를 말합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화학성 식중독의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중 식품으로 인한 유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적절한 방지 대책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식중독 발생시기

식중독 사고는 연중 발생하지만 집단적인 중독 사고는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식중독지수

기상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식중독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지수란 식중독 원인균의 최적 성장조건(40℃, pH=6.5~7.0, 수분활성도=1~0.99)에서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간과 특정 온도에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의 생활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오늘과 내일)로 들어가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간의 식중독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식중독지수 예보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공합니다.

■ 식중독지수에 따른 주의사항

지수 범위	주 의 사 항
86 이상	3~4 시간 내 부패, 음식물 취급 극히 주의, 식중독 위험
50 ~ 85	4~6 시간 내 부패, 조리 시설 취급 주의, 식중독 경고
35 ~ 50	6~11 시간 내 식중독 발생 우려, 식중독 주의
10 ~ 35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물 취급 주의

■ 문의전화 : 기상청 기상홍보과(☎ 02-836-3158~3159)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해 공헌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는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했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을 세운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에 귀감이 되는 보훈문화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 된 국민, 보훈문화가 함께합니다.

■ 6월 6일은 50돌을 맞는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꽃 한 송이 바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립니다. 이날 만은 음주와 유흥을 삼가고 가족과 함께 국립묘지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조국을 생각해 봅시다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실 (☎ 02-2020-5062)

❖ '05.6.1일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5만원의 과태료 즉시 부과

-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 사망재해의 52.8%를 차지하는 추락·낙하·비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안전모 착용이 필수적

■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약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005.6.1일부터 본격 조치

■ 문의전화 : 인천노동청 산업안전과 (☎ 421-4721)

❖ 오존저감을 위한 시민 협조사항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 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기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7시 이후에 주유하고, 탱크를 가득 채우거나 기름을 흘리지 맙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 차량 운행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 카풀제에 적극 동참합시다.

■ 환경친화적인 운전문화를 정착합시다.

■ 에너지를 절약 합시다.

■ 문의전화 : 산업경제과 (☎ 760-7386)

❖ 월1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안내

주4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1회 토요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휴업일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주5일수업제 홈페이지(5days.edunet4u.net)

- 자료실(인프라자료실, 체험학습프로그램자료실, 일반자료실)
 - 토요휴업일 활동사례(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학교시설 활용사례, 지역사회시설 이용사례, 미등교학생 활동지도사례, 미등교학생 생활지도사례(창의적교과교육활동), 기타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et.go.kr) → 바로가기

- 문화포털(www.culture.go.kr)
 -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청소년, 체육, 도서관
- 문화예술(www.culture-arts.go.kr)
 - ※연극, 음악, 무용, 건축, 영상, 문예일반, 미술, 디자인 등
- 문화유산(www.heritage.go.kr)
 - ※문화유산탐방, 전통민속문화, 문화유산교실, 사이버박물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촌관광(www.greentour.or.kr) → 마을찾기, 체험행사
 - ※체험검색, 추천체험, 지역축제, 여행 / 관광, 체험수기, 체험사진관
 -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학생을 위한 체험, 어린이를 위한 체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정보바다(주부요리/여행교실) → 이 달의 어촌
 - ※토요휴업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안내를 받아 학교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유관 단체 및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우리부 주5일수업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전화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02-2100-6245)

❖ 현충일에는 태극기(弔旗)를 답시다

- **오는 6월 6일은 제50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弔旗게양 시간은 : 2005년 6월 6일(월) 07:00~18:00**
 -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고 있는 옥외의 주된 게양대는 당일 07:00이전과 18:00 이후에는 평시와 같이 게양합니다.
 - 울타리기, 군집기, 기관기 등 다른 기도 모두 弔旗게양
- **弔旗게양은 이렇게**
 -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 태극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하합니다.
- **弔旗게양은 어디에**
 - 주택의 경우는(집 밖에서 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기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기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
 -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 **문의전화** : 행정자치부 의정팀 (☎ 02-3703-4437)

❖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겨울 ‘내복입기’에 이어 올 여름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백만인 에너지절약 실천약속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이벤트에서는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26~28 로 유지하겠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절약 약속을 하면 된다.
- 또한 냉장고 구입 시 전력소비량 확인하기,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은 낮 시간 피해서 사용하기, 4층 이하는 걸어서 다니기, 수도물 아껴 쓰기 등의 10계명도 포함되어 있다.
- 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 약속’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경차·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을 3,333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www.kemco.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 실제로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1 낮추는데 약 7%의 전력이 더 소모되고 에어컨 1대가 선풍기 약 30대의 전력을 소모한다.
- **문의전화** :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사 (☎ 420-0711~4)

❖ 내집주차장갯기사업 안내

- 자가주차장확보 촉진 및 이면도로내 원활한 교통소통 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기존 담장이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한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합니다.
- **보조대상**
 - 주차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주상복합건물내에서 가게 및 창고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주택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대수 범위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보조금** : 최고120 ~ 320만원(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 | 구분 | 구분 | | 대문철거 | 경계담장 |
|------|---------------|---------------|---------------|---------------|
| | 직각주차 | 평행주차 | | |
| 보조범위 |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 총설치비용의 90%범위내 |
| | 최고 1,200천원까지 | 최고 1,800천원까지 | 최고 2,300천원까지 | 최고 3,200천원까지 |
- **문의전화** : 중구 교통행정과(☎ 760-7557)

❖ 「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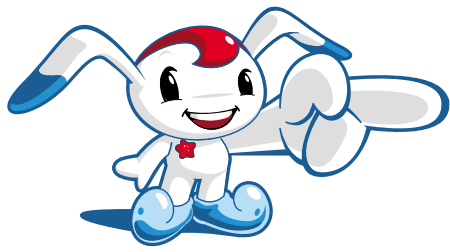
- 인천중부소방서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피해지원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전국 소방서 원격지 발급) ▶의료보험 및 화재보험 처리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화재 손실에 대한 세법상(국세, 지방세 등)의 지원제도 ▶소손 및 오손된 화폐의 교환방법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4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된『화재피해 주민지원 센터』에서는 ▶생활지원 분야(응급구호물품 지급 등) ▶세무지원 분야(세금감면 안내 등) ▶의사상자의 지정 안내 등 화재피해 주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각종 행정정보에 접근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피해복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의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인천중부소방서 화재조사팀 (☎ 773-4647)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전금융기관으로 확대

- 금융감독원은 2005. 4. 4. 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 「상속인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대상회사」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토록 조치.
- 아울러 상속인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고객이 직접 금융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 접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조회가 가능한 협회 및 홈페이지**
 - 은행연합회 : www.kfb.or.kr (☎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02-2262-6647)
 - 새마을금고연합회 : www.kfcc.co.kr (☎ 02-3459-9487)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63)
 - 산림조합중앙회 : www.nfcf.or.kr (☎ 031-884-1781)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사이버민원실-민원상담안내-상속인 조회(http://www.fss.or.kr/kor/nav/framecheck.j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홍보팀 (☎ 02-3771-5904)

❖ 200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5. 5. 17 ~ 5. 28까지
- **신청대상** : 중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제외대상**
 - 영업정지 처분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관광특구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업소 : 호객행위, 불법 간판, 광고 부착 및 살포, 불법쓰레기 투기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중구청(보건복지과 위생관리팀)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중구지부에서 신청서를 교부후 작성 제출
 - 인터넷 접수 : 하단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 서식을 Download 받아 신청서를 E-mail로 제출 (E-mail 주소 : k4192222@icjg.go.kr)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별첨1)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별첨2)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별첨2)에 의거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모범지정증 교부** : 2005. 7월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20만원상당의 환경개선 물품지원
 - 모범업소 위생감시
 - 인터넷 게재 홍보 및 책자 발간시 게재 등
- **문의전화** : 중구 보건복지과 (☎ 760-7347)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중구지부 (☎ 772-8612)



우리 작은
소식들은

(자료수집 : 이재경)



젊음이 넘치는 월미도 거리

우리 구에 지난 5일 하루에 약 15만명 이상이 관광을 즐긴 것으로 추산되었다. 관광특구인 중구에 시작된 관광의 봄에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아름다운 가게 행사

25일 열린 「아름다운 가게」행사를 위해 중구 전 직원이 재활용 물건 1,000점 수집으로 나눔의 행사에 참여했다. 판매수입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어진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우리 구 노인회에서는 4일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제3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가졌다.



신포상가연합회 봉사활동

신포상가 연합회(회장:최재훈)에서는 매월 첫째 수요일이면 정기적으로 신포문화의 거리에서 구 산업은행까지 간판정비, 가로수보호, 하수구정비, 가로변청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동네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중구미용사협회 자원봉사 활동

중구미용사협회에서는 30년 가까이 매달 3째 화요일에 외로운 이웃들에게 무료 커트나 파마를 해주어 주위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



어린이날 자축식

5일 우리 구에서는 제8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최초 서구식공원인 자유공원 메인광장에서 자축식을 가졌다.

중입 검정고시반 수강생 모집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잃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중입검정고시반(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중입검정고시 대비반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5년 6월 7일(화)
- 교육 일시 : 매주 월 ~ 금, 오전 10시~12시
- 교육 대상 : 성인 여성
- 교육 내용 : 초등학교 과정(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도덕, 체육, 실과)

베이비시터 양성반 교육생 모집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베이비시터(방문육아 서비스)활동을 원하는 분들과 초보 엄마들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11기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일시 : 6월 ~ 7월 (매주 화 오전 10시~1시)
- 교육 대상 : 성인 여성
- 교육 내용 : 놀이 및 육아교육, 부모상담, 방문예절 육아리포트, 몬테소리, 풍선아트등
- 모집 기간 : 2005. 5.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복지관 내방접수 및 전화, 팩스 접수
※교육 후 수료증 발급 및 베이비시터 활동지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대 상 : 중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7,000명
- 기 간 : 2005년 6월 ~ 9월
- 검사내용
 - 치매간이검사(MMSE) 및 설문지
 - 정밀검사 실시 : 치매 의심자에 한하여 X선 촬영 및 CT검사
- 검사방법
 - 검사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검사 실시
 - 전화를 통하여 사전예약제 실시
- 치매환자 관리
 - 치매용품 (기저귀, 관련 용품)제공
 - 치매 주간보호시설 운영(2005년 하반기 실시예정)
 - 배회방지를 위하여 치매팔찌 제공
 -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중구보건소 담당자 조은행 (☎ 760-7660)

정신보건사업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다양한 제공과 더불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용대상
 - 중구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이용시간
 - 전화상담 : 월 금 오전 10시~오후 4시
 - 정신과전문의 상담 : 화, 수, 목 2시~4시
 - 주간재활프로그램 : 월, 수, 금 오전 10시~오후4시
- 내용
 -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의 재발로 인한 만성화를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사회생활유지)를 도우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계획과 교육 실시
 - 작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직업기술과 직업유지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작업장 운영
 - 지역사회내 기업체 연계 및 취업장 발굴을 통하여 취업 기회 제공

- 문의처 : 중구정신보건센터 (☎ 760-7696, 772-0059)

임산부 정신건강 강좌 수강생 모집

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한 「임산부 정신건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5년 5월 17일 ~ 6월 17일
- 모집방법 : 전화접수(선착순 30명 모집)
- 모집대상 : 임산부
- 교육내용
 - 일 시 : 6월 24일(금) 오후 2시~3시
 - 내 용
 - 우울증 척도 검사
 - 정신건강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증 대처방법 등
 - 강 사 : 신상은(인천기독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 교육비 : 무료
- 문의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60-7663)

경로당 이제 능동적으로 운영
우리 가족들처럼 사랑나누어요

인천 중구 율목동 노인정(회장 : 윤병옥 옹 74세)에서는 웬지 우리집 같은 분위기가 친근하게 다가서는데 155명의 율목동 노인정 회원들 모두가 이웃사촌으로 화목하고 꾸밈없이 지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율목동 경로당이 신축된 이래 노인정 어르신들은 신바람이 나고 있다. 그 이유는 율목동 노인들이 지난 어버이날 행사시 시에서 우수 노인정으로 선정되어 서로를 자축하고 격이 없는 이웃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율목동 경로당의 오늘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경로당 회장인 윤병옥 옹을 비롯한 회원들은 방학이



김영태 동장, 임관만 구의원과 윤병옥 노인회장이 간담회를 갖고있다.

되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여름방학교실을 개설하여 올바른 예절교육으로 큰절하기, 한자교육등과 더불어 가족사랑과 경로사상을 심어주고 있다. S구 소재 모 의원 의사를 초빙하여 신경통, 위장병 등 만성노인질환 등 4회 120명 상담을 통하여 노인건강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가 인접지역과 뒷골목이 있어 야간에는 청소년보호캠페인 전개 및 경로당 주변 청소하기 등 부지런한 활동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옥 회장은 중구의회의원(율목동의원 : 임관만)을 비롯 율목동장(동장 : 김영태), 자치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도와주었기에 율목동 경로당이 타의 귀감으로 될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는 매월 노인회원 스스로 자축하는 생일파티를 개최하겠다는 등 윤병옥 옹의 봉사정신에 뜨거운 갈채와 건강을 소망한다. (취재 : 박재신)

중구보건소 여성건강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재 중구 여성분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운영 중인 여성건강교실의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멋진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수강신청 : 5. 26일 ~ 6. 4일 까지
- 신청대상 : 40세 ~ 60세 사이의 여성 40명(선착순)
- 교육기간 : 6월부터 ~ 7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주1회/총 8주간)
- 교육장소 : 신흥동 중구보건소 2층 (노인복지회관 소강당)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통합보건실 (☎ 760-7662, 772-4001)
- 수 강 료 : 무 료

제 목	일 자	교 육 내 용	건 강 검 진
제3기 스트레스 관리반	6. 10	갱년기우울증 관리	1.일반적사항 설문조사 2.BMI및체지방 3.콜레스테롤, HDL, 혈당, 중성지방 4.갑상선암 검사
	6. 17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우울증검사
	6. 24	마음을 여는 대화법(1)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검사
	7. 1	마음을 여는 대화법(2)	
	7. 8	발맞사지(1)	
	7. 15	발맞사지(2)	
	7. 22	경락 및 지압(1)	
	7. 29	경락 및 지압(2)	

Congratulation

85년생 친구 여러분~!
성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985년생 친구 여러분의 멋진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미꽃 스무 송이, 은은한 향수, 달콤한 키스!... 그리고 선거권!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바로 선거권이 주어진다 것입니다.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의 주인은 이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지요스무살 새내기들은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멋진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당당해서 아름다운 스무살!
우리들의 멋진 젊음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강슛~!!**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결산

청소년 동아리 결산 축제



■ 일 시 : 2005. 5. 28(토) 15:00 ~ 18:00

■ 장 소 : 월미도 문화의 거리

■ 내 용 : 중구쟁! 시상식 및 결산공연
• 수상팀 등 공연 10개팀
• 중구청장 표창시상 및 격려

■ 축제 결산 공연 내용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우수팀

• 발라드, 댄스, R&B, 팝송
• 풍물, 그룹사운드, 중창, 수화, 마술 등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락(Rock)부문 우수팀

• 락밴드, 인디밴드, 가요밴드 등 그룹사운드

청소년 문화축제 한마당 댄스(Dance)부문 우수팀

• 힙합,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등



(자료제공 : 문화공보실)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제12회 방재의 날(5. 25)을 맞이하여 자연재해예방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소방방재청 후원)

■ 공모구분 : 초등부 / 중 · 고등부 / 대학 · 일반부

■ 참가대상 : 초등학교 이상 전 국민

■ 출품규격 : 4절 아트지 또는 B3용지(515 364)

• 공모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평면 표현물 1매 및 작품설명서

■ 작품주제

-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 태풍, 호우, 해일, 지진,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내용
- 자연재난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재난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협심하여 피해를 복구 하는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 등

■ 접수기간 : 2005. 5. 1 ~ 5.10

■ 작품접수 : 중구청 재난안전관리과 및 중구 각 동사무소

■ 시상내용

- 최우수상 1점 : 전체작품(상장 및 부상품)
- 우수상 3점 : 각 부문별 1점(상장 및 부상품)
- 장려상 3점 : 각 부문별 1점(상장 및 부상품)
- 최우수상 1점 인천광역시에 추천

■ 기타사항

- 당선작 발표는 개별통지하고,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구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중구청 재난안전관리과 ☎ 760-7807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작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중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주세요!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과 나눔의 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분야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국번없이 『1365』를 누르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 길 100번지 (중구청내)

문의전화 : ☎ (032) 777-1365, 770-7206/7, FAX 760-7209

본 '인천 중구소식'지를 배부하여 주시는 통·반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